

11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기온 저하에 대비하여 우사내 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임신우의 분만 전 또한 가임우들의 수태율 향상과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충분한 운동을 시키는 것이다. 개체의 건강관리(운동)는 분만시 난산을 방지하고 자궁근 수축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분만을 용이하게 하며, 자궁회복과 송아지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젖소의 영양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우유 내 요소태 질소(MUN-milk urea nitrogen) 또는 혈액 내 요소태 질소(BUN-blood urea nitrogen) 농도를 검사하여 섭취한 영양소를 기준으로 개체별 단백질의 양과 분해성,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을 알 수 있어, 영양결핍이나 과잉급여를 조사하여 사료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

단백질의 과다 급여는 MUN 수준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황체형성호르몬(LH)의 작용을 저해하여 황체형성을 억제하고, 발생하고 있는 수정란에 유독 물질로 작용하여 수태율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MUN 수준을 모니터하여 젖소의 영양관리를 하여야 한다. 분만 후 심한 에너지 부족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A, E 및 광물질을 투여하면 난소 등의 내분비 기능이 향상으로 난소의 기능저하를 대체하며, 기능을 회복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주기적으로 개체를 관찰·체크하여 생육단계 및 비유기별 적정 신체총실지수(BCS)의 유지가 필요하다.

번식우의 경우, 신체총실지수가 2.5~3.0이 되도록 적어도 한달에 1회 정도 신체총실지수 측정을 실시하여 적정 사양관리로 번식장애 발생비용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정기록(부)와 번식기록(부) 작성을 철저히 생활화하여 번식기록에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체별 번식상황 기록은 분만상황(분만예정일, 분만일, 분만의 난이도), 발정상황(발정시기, 발정예정일), 인공수정일, 재발정일, 정액명, 번식장애의 유무(병명, 치료횟수, 치료약제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우상에 걸로가 생기면 발정우는 승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상의 건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외기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고 발정우의 활력이 저하되어 움직임을 싫어하고 일조량이 감소하면 번식우의 발정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등 수태율의 저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정예정일을 미리 예측하여 세심한 발정관찰로 발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시기적으로 초초의 이용이 줄고 건조나 사일리지의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사일리지 품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일리지 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개봉 후 2차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일리지의 파내는 면적을 가능하면 적게 한다. 또한 매번 파낸 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덮어두는 것이 절단면을 공기의 노출로부터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우사나 운동장의 분뇨는 본격적인 겨울이 되기 전에 제분작업을 실시하고 깨끗한 깔짚을 깔아줌으로써 건조한 깔짚 위에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 발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임신우가 송아지를 분만할 경우 가능한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분만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초유를 최대한 급여하도록 해준다. 초유에는 비타민 A, D, E 및 단백질 등 영양 물질이 많고 송아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동면역을 제공해주는 면역 글로블린(IgG)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송아지는 생후 24시간 이내에 충분한 초유를 먹어야 한다.

고능력우일수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번식률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개체별로 체크하여 지나치게 살이 찌거나, 허약해진 소는 개체별 보완사육이 될 수 있도록 영양·사양 수준을 조정하여 번식이 지연되는 개체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㉞

